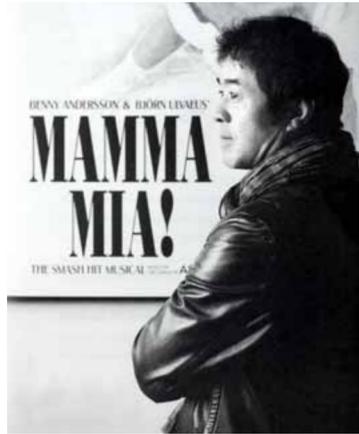


“프로듀서의 꿈이 모든 무대의 출발”

프로듀서론 ‘이럴 줄 알았다’ 퍼낸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현장과 미래 트렌드 읽는 안목·투명 경영 필수”
유인촌·윤석화·손숙·전무송 등과 ‘햄릿’ 준비
이해랑 탄생 100년 기념 국립극장과 공동 제작
내년부터 창작 뮤지컬 ‘아리랑’ 지방 공연 추진



유인촌, 윤석화, 정동환, 손숙, 박정자, 전무송, 김성녀를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전무후무한 공연이 열린다. 정통 연극 ‘햄릿’이다. 공연 제작사 신시컴퍼니와 국립극장이 한국 연극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배우 출신 연출가 이해랑 선생 탄생 100년을 맞아 준비한 기념작이다.

한국 공연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해남 출신 박명성 신시컴퍼니 프로듀서의 도전은 다시 시작됐다. 박씨가 끝없는 도전의 과정 속에서 생생하게 걸어 올린 프로듀서론을 담은 ‘이럴 줄 알았다’(북하우스)를 펴냈다.

“예전에 발간한 두 권이 전반적인 작품 제작 노트라고 한다면 이번에 펴낸 책은 직접 제작 컴퍼니를 경영하고 작품을 만들며 느낀 예술 경영쪽에 무게를 실은 프로듀서론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 작품 한 작품 부딪치며 몸으로 배운 것들이예요. 저의 때는 마땅한 책이 없었어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펴내게 됐습니다.”

10년간 1400회 공연, 170만명을 모은 ‘맘마미아’를

비롯해 ‘아이다’, ‘시카고’ 등 히트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신시컴퍼니는 ‘댄싱 샤페오’, ‘엄마를 부탁해’, ‘아리랑’ 등 수익성과는 관계가 없는 창작 뮤지컬도 꾸준히 제작해왔다. 특히 5월 광주를 다룬 ‘푸르른 날’을 등 연극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수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그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거듭했고, 노하우를 쌓았다.

“프로듀서가 갖춰야 할 큰 덕목은 현장을 읽는 안목입니다. 또 도덕적이고 투명한 경영이 꼭 전제돼야 하고 무엇보다 미래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작품을 만들어 많은 콘텐츠를 공간에 쌓아두어야 해요. 프로듀서의 꿈은 모든 무대의 최초입니다. 프로듀서가 꾸는 꿈이 모든 무대의 출발인 셈이죠. 스타일, 개성 등을 실패 어떤 작가와 연출, 배우가 그 꿈을 함께 이뤄가는 데 더 가능성이 큰지 꿰뚫어보고 캐스팅하는 게 바로 프로듀서의 능력입니다. ‘푸르른 날’, ‘아리랑’ 연출로 고선웅을 택한 건 감독과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의 장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의미있는 도전으로 꼽은 작품은 ‘댄싱 샤페오’로 수십억원을 날린 뒤 7년만에 재도전한 창작 뮤지컬 ‘아리랑’과 ‘렛미인’이다.

“4년간 꾸궜었던 일이었죠.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영웅이 아닌, 민초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데 자부심이 있어요. 뮤지컬 극본으로 완성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었지만 스텝과 배우 등 탄탄한 앙상블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첫 해라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의 전석 매진을 이끌어낸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 행복했습니다. 또 한편은 배우 박소담이 출연한 연극 ‘렛미인’입니다. 민간 제작사가 할 수 없는 레퍼리카 제작시스템을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뮤지컬이 아닌, 정통 연극에서 작가, 연출, 음향 등 모든 파트에서 외국 오리지널 스텝이 참여하는 레퍼리카 시스템은 유례가 없었죠. 제작비는 많이 들었지만 관객들의 반응도 좋았고 또 다른 실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은 내년에도 다시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르며 지방 투어도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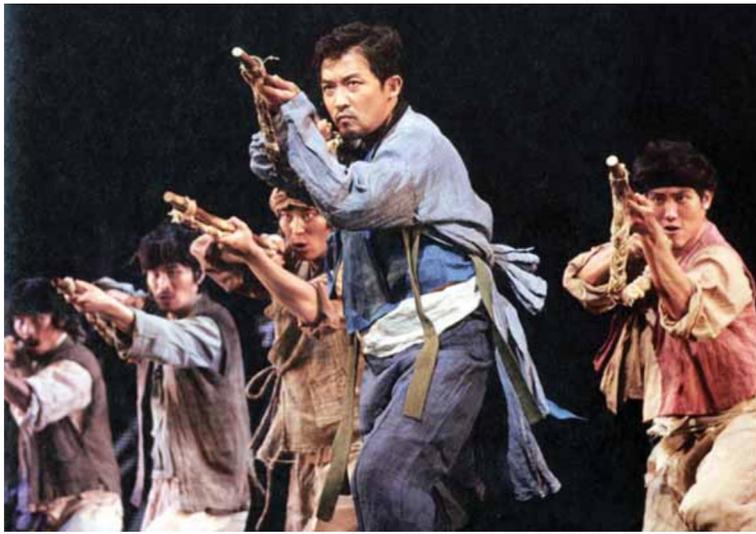
그의 도전은 멈출 줄 모른다. ‘햄릿’(7월12일~8월7일)도 그 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이해랑 연극상’ 수상자들만 작품 하나 만들어보자했어요(그는 프로듀서로서는 최초로 이해랑 연극상을 받았다) 우리 연극계의 전설 같은 분들이 한 무대에서, 그것도 더블 캐스팅 없이 27회 전 공연을 소화해 내십니다. 오직 ‘연기’, 정통 연기만으로 작품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기획입니다.”

그와 땀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목포 출신 극작가 고(故) 차범석 선생이다. 살아 생전 양아버지로 그를 모신 박 대표는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집향’, ‘푸르른 날’에 이어 10주기 추모 작품으로 신구, 손숙이 출연한 ‘아버지와 나와 흥패외’를 공연중이다.

올 한해 신시컴퍼니 라인업은 다채롭다. ‘맘마미아’가 상연중이고 연극 ‘레드’가 시작된다. 하반기에는 아이비·윤공주·성기윤이 출연하는 뮤지컬 ‘아이다’가 관객을 만나며 또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자인 목포 흥패외 출신 장우재, 고선웅 연출과 이종섭 관련 연극도 준비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공연된 창작 뮤지컬 ‘아리랑’은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에게 자부심을 안겨준 작품이다.

씻김굿·판소리... 전통 남도예술의 재해석

문화전당·시립발레단 15~16일 ‘봄의 제전 G’ 공연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을 바탕으로 니진스키가 안무한 ‘봄의 제전’은 1913년 파리에서 초연 당시 술한 화제를 낳았다.

‘봄의 제전’을 모티브로 예향 광주의 전통 문화예술을 녹여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봄의 제전 G’가 공연된다. 15일 오후 7시30분, 16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2.

이번 ‘봄의 제전 G’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시립예술단체와 진행하는 첫번째 공동제작 작품이다. 또 광주시립발레단 창단 40주년 기념, 광주·중국 광저우 자매도시 20주년 기념작으로 9월 광저우 오페라하우스에서도 공연된다.

작품은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신순주)과 한국 대표 아티스트 협업으로 이뤄지며 ‘씻김굿’의 예술적 형식미와 감성을 담았다. 공연

은 크게 2막으로 나뉘어 ‘인신공희(人身供犧)’를 소재로 원시적인 문화와 풍습 속에서 벌어지는 이기적인 욕망을 표현하며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전해준다.

한국 전통 악기가 편성된 오케스트라와 판소리와 전통 한자로 꾸민 무대도 눈길을 끈다.

주역으로는 시립발레단 신승현을 비롯해 한국 대표 발레리나 김주원,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엄재용, ‘댄싱9’ 발레리노 윤전일이 출연한다. 연출은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출신 이정윤이 맡았다. 15일 엄재용·신승현, 16일 김주원·윤전일, 티켓 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ACC 홈페이지(www.acc.go.kr), 콜센터(1899-55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생과 사의 대비... 안 마쌀 사진전



30일까지 광주홀리데이인호텔

광주프랑스문화원이 30일까지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서구 치평동)에서 사진전 ‘플뤼미주/데플뤼미주’ 사진전을 개최한다.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젊은 프랑스 사진작가 안 마쌀(Ann Massal·39)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런던과 파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안 마쌀은 신체와 색채, 아름다움, 패션, 삶과 죽음의 표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시 주제 ‘플뤼미주/데플뤼미주’는 ‘깃털’과 ‘깃털뽑기’라는 의미다. 이번 전시에서는 죽어있는 자연과 살아있는 신체로 나뉘어 대비되는 두 사진 작품을 나란히 배치한다. 비슷한 색채를 띠면서도 다른 소재를 사용해 삶과 죽음을 탐구하던 작가 고민을 전한다. 작가는 지난 2000년 프랑스 광고교육 전문학교 ‘CEL-SA’ 졸업논문 준비하며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갑자기 근시가 됐다. 이후 ‘예술적인 모호함’을 탐구하며 사진시리즈를 선보였다. 문의 062-527-2500. /김용희기자 kimyh@

http://art.kjmedia.co.kr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6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6. 4. 20(수) ~ 5. 26(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 기간

음악·무용·국악 부문
2016년 4월 6일(수) - 4월 12일(화)

미술·작문 부문
2016년 5월 16일(월) - 5월 18일(수)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경연기간: 4월 20일(수) - 5월 26일(목)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6년 4월 18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국회(의정상(예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예정)
개인-최고상·금상·은상·동상·정려상
단체-최고상·금상·은상·동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